

없고 말았으니 말이야. 그녀는 빌린 돈 겨우 넷 드니에●로 늙은 흑인 노예 한 명을 구했고, 이 지대의 한쪽 구석 작은 땅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다네.

흑인 여종을 데리고 이곳에 온 라 투르 부인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마르그리트를 발견했어. 자기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녀로서는 반갑게 느껴졌지. 부인은 마르그리트에게 자신의 과거 신분과 현재의 곤궁한 처지에 대해 한두 마디 말을 꺼냈네. 마르그리트는 라 투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에 마음이 북받쳤고, 인정받기보다는 그녀의 신뢰를 얻고 싶었던 나머지, 자신이 저지른 경솔함이라는 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고백했어. 마르그리트가 말했네.

“제 신세야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부인, 부인께서는

.....

이리도 정숙하신 분께서 불우하게 지내시다뇨!”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오두막을 내주고 친구가 되어주겠다 했네. 라 투르 부인은 그토록 다정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감동해, 마르그리트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

“아! 하느님께서 제 고통을 끝내시려나 봅니다!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후의를 저에게, 그것도 외지인인 저에

● 프랑스의 옛 면적 단위로, 1아르팡(arpent)은 약 50아르(a). 여기서 20아르팡은 약 10헥타르(ha), 즉 10만 m^2 로 추산된다.